

광주시장·지역 국회의원 '1+8 회동'

자치구간 경제조정 2년 전 기준용역 결과 토대 긴밀 협의키로 공항 문제·행정통합·공공기관 이전 "전남도와 상생 최우선"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3일 오후 광주 동구 전통문화관에서 만나 광주지역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장과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3일 '1+8 회동'을 갖고 광주지역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모색했다.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자치구간 경제조정에 대해서 기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고, 민간공항 통합과 군(軍)공항 이전, 광주·전남 행정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해서 큰 틀의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무엇보다 광주·전남 상생에 방점을 찍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은 추석 연휴 막바지인 3일 오후 광주 동구 전통문화관 내 임시당에서 지역 현안 간담회를 갖고 ▲자치

구간 경제 조정 ▲제2차 공공기관 이전 ▲2021년 국비 확보 ▲민간공항 통합 및 군공항 이전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5대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갑석 시당위원장과 윤영덕·이병훈·양향자·조오섭·이형석·이용민·민형배(지역구 순) 의원 등 모두 8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40분 가량 연장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 협의하고 손을 잡고 협력해 나가자는 뜻을 같이했다.

우선,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자치

구간 경제 조정의 경우 기형적 선거구의 정상화, 자치구간 인구 편차 조정을 통한 구별 균형발전을 위해 경제조정이 필요하고 그 취지에 공감한 뒤 구체적 방법은 "기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해 가자"고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2018년 1억3700만원을 들여 실시한 연구용역과 이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3개안이 확정됐고, 그 가운데 시민선호도가 가장 높은 중폭 조정안이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폭 개선안은 북구 다산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접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해서는 1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의 진정성과 상생정신, 광주·전남의 동반성장을 위해 전남과 큰 틀에서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06년 광주시장, 전남지사, 나주시장이 맺은 상생협약이 하루 빨리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민 반대 등으로 난관에 부딪힌 광주공항과 무안국제공항 통합 문제는 2018년 8월20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발표문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상생정신이 전제돼야 합을 재확인하고,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전남도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국방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도록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전남 상생발전위는 2018년 8월 공식 발표문을 통해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한다면 군공항도 전남으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공감하고, 전남도는 이전 대상 지자체, 국방부, 양 시·도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 전지역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군공항이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0일 광주시장의 예고없는 제안으로 핫이슈가 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지역의 미래발전과 시·도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향에서 '진정성'을 갖고 '차분하게' 전남도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적인 의도없이 공감과 진정성을 중시하고, 속도전보다 신중한 행정에 무게를 둔 합의로 풀이된다.

내년도 주요 현안사업 국비 확보와 관련하여서는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위한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원칙론에 뜻을 함께 했다.

동구,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 본격화

광주 동구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으로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형 상생협력상가'는 광주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동구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임차인에게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하하고, 임차인과 상생협력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는 최대 1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28일 동구형 상생협력상가 약정식을 가졌다. 이날 약정식을 계기로 동구,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서구, "자연재난 위험" 함께 대처해요

광주 서구 자율방재단이 최근 추석맞이와 자연재난 위험 대처일환으로 야외 무더위쉼터에 대한 환경정비에 나섰다.

서구는 올해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야외 무더위 쉼터를 새롭게 정비해 관리하고 있으며, 총 70개의 야외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환경정비에서 자율방재단은 야외 무더위 쉼터 70개소에 대해 쓰레기 수거 및 장비 점검 등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특히, 자율방재단은 올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무더위 쉼터 방역을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폭염대비시설 그늘막 79개소에 대해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개·폐 작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에 힘쓰고 있다.

남구,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손본다

광주 남구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태풍 등으로 훼손된 안내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 작업을 나선다.

지난 9월28일 남구에 따르면 관내 훼손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가 10월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정비에 앞서 남구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관내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2만6,584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외부에 의한 접촉과 태풍 등의 영향으로 망가지거나 훼손된 관련 시설물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에 정비하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은 총 266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남구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 10월 한달 동안 일제 정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북구,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광주 북구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로 선정됐다. 북구는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0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광주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1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일자리대상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과 창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로 북구는 지자체장의 임기 중 일자리 목표와 대책을 평가받는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2년 연속 최우수상 수상이자 2013년 이후 8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광산구, '대한민국 SNS대상' 2년 연속 최우수상

광주 광산구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후원의 '제10회 2020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SNS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현황을 평가하는 장.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광산구는,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광산구는 SNS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소셜지기단과 1인 크리에이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내용으로 시민과 정책소통에 나섰다.

특히, 매일 1-2회 코로나19 확진 등 관련 정보를 알린 '코로나19 시민소식지', 공공 SNS 채널을 지역기업과 소상공인의 홍보처로 활용한 '홍보대행사 광산'이 주목을 끌었다.

전남개발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등' 쾌거

15개 공사 중 '최우수기관'

전남개발공사(사장 김철신)는 2020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창립 이래 최초로 '전국 1등'과 '최우수' 등급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지방공기업에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가치 등 3개 분야의 성과를 점검해 평가 결과를 5등급으로 나눠 발표하고 있다. 2020년 도시개발공사

군 평가결과를 '최우수' 3개, '우수' 3개, '보통' 3개, '미흡' 5개, '매우미흡' 1개로 발표되었다.

전남개발공사는 5년 연속 흑자(2019년 당기순이익 337억원), 77%대의 낮은 부채비율 등 역대 최고의 재무성과를 바탕으로, ▲해상풍력 등 전남 블루 이코노미 선도 ▲동·북부권 등 지역균형개발을 통한 사업성과 ▲지방공기업 최초 지역상생펀드 출범 ▲ISO 37001·14001 인증 획득을 통

한 윤리·환경·안전경영체제 확립 ▲공공구매 고득점 등 사업과 경영 전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전남형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로 2020년까지 11만 7천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지방공기업 최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전남행복동행펀드를 출범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들에



계 나눔정신을 실천하여 지역내 사회적 가치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정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서민정법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어문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위라벨 실천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여! 늦게서 재안한 슬로컨설팅입니다.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므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